서 평

鈴木一郎, 『地域研究人間-異文化理解への道』, 東京大學出版會, 1990.
山口博一, 『地域研究論』, アジア經濟研究所, 1991.

이 종 구

Ⅰ. 자료의 성격과 일본의 연구 동향

한국의 학계에서 지역연구(area studies)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이후이며 탈냉전, 국제화, 개방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영어를 병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나 촌락연구와 혼동하는 연구자가 드물지 않을 정도로 지역연구는 아직 학문적 시민권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환경때문에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이 갑자기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역연구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한국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국제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던 일본 학계의 성과를 집약한 鈴木一郎(Suzuki Ichiroo)와 山口博一(Yamaguchi Hiroichi)의 작업은 지역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국내 학계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사람은 개인적으로 국제화된 사람들이며 학문적인 국제교류에도 실제적으로 기여해온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생인 鈴木는 철학교수이며 미국과 스위스에 유학한 경험이 있고 많은 일역과 영역 작업을 통해 문화교류에 기여하여 왔다. 山口는 일본 정부의 발전도상국 연구기관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Insi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 전문가이다. 鈴木는 철학자답게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는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되새기고 있다. 지역연구의 목적은 특정지역에 대한 종합적(comprehensive) 이해에 있으며 지역연구자는 자기의 전문영역(discipline)을 지키면서 일정한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설정하여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학제적 공동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적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지리상 발견시대 이후 지금까지 구미에서 이루어진 일본에 대한 연구사도 검토되어 있으므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의 주요 논점이 드러나고 있다. 山口는 IDE 창설 30주년 기념으로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 걸쳐 개최된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도상국에 대한 지역연구를 다루고 있으며 현실과 직결된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책은 1991-1992년에 걸쳐 IDE에서 간행된 14권으로 구성된 지역연구 전집의 제1권으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는 자기의 전공에도 충실하고 언어를 비롯한 지역사정에도 밝은 사회과학자라는 것이 지역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지역연구자는 특정지역에 대한 "事情通"의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실정에는 어둡지만 이론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일반론자들과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물론 지역연구의 방법을 검토할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준거틀 자체의 차이는 감안해야 한다. 이들의 논의 가운데는 공감이가는 실무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구미의 연구자가 일본을 보는 시각이나 일본의 연구자가 외국을 보는 입장에 대해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구미, 러시아, 동구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 대한 최신의 연구 정보가 들어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Ⅱ. 지역연구로서의 일본연구

鈴木는 明治維新 100주년(1968)과 프랑스혁명 200주년(1989)이라는 두개의 계기가 오늘날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전자를 중시하는 시각 가운데는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과 전통적 노우하우가 결합되어 이룩된 일본의 근대화가 일단락되었으며 이 경험을 제3세계의 발전도상국에 전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사람과 물건의 해외유출이 격증하는 제2의 개국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세계 각지에서 일본인들이 겪는 문화마찰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사회의 국제화를 반영하여 대학에서 「지역연구」「비교문화」와 같은 강좌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언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제3세계와 구사회주의권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면 프랑스혁명 당시에 제시된 인간해방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津田塾(Tsudazyuku)대학에서 저자가 제2의 개국 이후에 성장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강의안을 정리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장 지역연구와 국제관계론」에서는 지역연구의 목적은 「미국연구」「일본연구」「아세안연구」와 같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 및 비교에 있다고 제시되었다. 저자는 국제관계에서 「강자의 논리」만 내세워서 갈등이 해소될 수 없고 상대방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 지금의 상황을 일본에서 지역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으로 들고 있다. 물론 지역연구는 국제관계론이나 국제적 비교연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나 국제경제의 차원을 넘어 심리,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문화인류학, 비교종교학, 민족학, 민속지, 비교사회학, 등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연구의 시점」은 지역연구의 학적(學籍), 즉 학문 영역으로서의 시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각국의 대학에 있는 지역연구기관은 대부분 이차대전 이후에 설치되었다. 자국 이외의 특정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연구(area studies)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 이차대전을 계기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외국만이 지역연구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족, 언어, 종교가 여럿인 복수 문화

(pluralistic culture)를 가진 오스트레일리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교육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자국인에 의한 자국의 연구가 중요하게 된다. 이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인론」「일본문화론」이 쏟아져 나온 배경에는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초래된 문화마찰이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돌이켜 보게 되므로 비교연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개별 현상을 나란히 늘어놓고 관찰하는 것이 비교연구가 아니며 연구자의 가치관에 근거한 해석을 대비(對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특정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막연하고 곤란한 일이므로 결국 연구자는 자기 전공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학제적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 지역연구의 연혁 1 -」에서는 현실 문제를 검토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대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민족의 뿌리를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저자가 역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지식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다. 특히 대항해시대의 개막은 「항해술과 지리학(수량적 계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종교를 포괄하는 인문지리학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는 계몽사상, 경험주의 철학, 자연과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부터 서구에서는 일본에 관한 문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에서도 18세기초에 서양의 역사, 지리, 풍속, 천주교를 다룬 『西洋紀聞』이 저술되었다. 1720년에는 종교서적을 제외한 양서의 수입이 허용되어 「蘭學」으로 불리우는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자는 몬로독트린(1823)이 발표되던 시대에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집단적으로 독립한 것과 이차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출현한 사실도 지역연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4장 근대국가의 형성과 식민지연구 - 지역연구의 연혁 2 -」는 18세기 이후 교통의 발달이 지역연구에 관련된 학문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해술과 증기기관의 발달로 세계 각지의 정보가 유럽에 대량으로 축적됨에 따라 유기적, 종합적, 비교론적 시점을 가진 근대지리학의 성립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중세의 학문 구분을 뛰어넘어 지역을 유기적 총체로 파악하는 사회학과 식민지연구가 등장했다. 식민지 연구의 과정에서 지리학만이 아니라 민족학, 인류학, 비교종교학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영역이 등장과 함께 문헌학이 발달되었다. 문헌학의 영역은 고고학적인 관심에 입각한 고대언어의 해독으로부터 아시아 언어로 확대되어 산스크리트어와 유럽 언어의 연관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비교문법론과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이 확립되어 유럽 각국의 문법학을 성립시켰다. 쇄국 상태에 있던 일본에서도 1745년에 네델란드어에 대한 연구인 「오란다文字考」가 만들어졌다. 1796년에는 64,035단어를 수록한 네델란드어 사전이 나왔다. 나가사키의 네델란드 商館長 헨드릭 두프를 중심으로 하는 통역들이 만든 사전도 1833년에 완성되었다.

「제5장 지역연구로서의 일본과 아시아 - 지역연구의 연혁 3 -」에서는 서양의 일본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이 다루어져 있다. 서양 최초의 일어 교육기관은 1710년에 러시아 페테로그라드에 설치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동진, 네르친스크 조약(1689), 등의 당시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일이었다. 1734년에는 러시아에서 일본사정에 대한 문헌이 출판되었다. 파리대학에는 1863년에 일본어 강좌가 설치되었다. 독일어권에서는 1841년에 일어사전이 만들어졌다. 서양에서 어문학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지역연구가 활성화된 시점은 개항(1858)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개항이후 외국인과의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폴레온법전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한편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전통적 법체계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즉 외부와의 접촉이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양 연구자들에게 촉발되어 일본인 학자들이 동남아 고대사를 19세기 후반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된다.

「제6장 국제이해의 운동과 전쟁 - 지역연구의 연혁 4 -」는 일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지역연구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1922년에는 지금의 유네스코의 전신인 「지적협력위원회」가 국제연맹에 설치되었다. 일본의 新渡戸稻造(Nitobe Inazo)가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 기구는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영향으로 각국에 지역연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1925년에 10개국에 걸쳐 조직된 태평양문제조사회(IPR;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가 중요하다. 미국 하바드대학의 옌칭인스티튜트에서는 1932년에 세르쥬 에리세프가 파리에서 온 다음에 일본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양성된 대표적인 일본연구자들 가운데는 라이샤워 형제, 노만, 홀, 등과 같이 선교사 집안 출신들이 많았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외교관 출신의 일본연구자가 많았다. 영국에서 일본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 시기는 영일동맹(1902-1921) 체결 이후였다. 교육개혁을 맡았던 레이위원회(Reay Committee)는 런던을 파리, 베를린, 페테로그라드와 같이 동양학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제안을 1908년에 제출했다. 그 결과 런던대학에 동양학부(School of Oriental Studies)가 설치되었으며 일본 담당자는 일본어, 일본사, 문명사, 종교, 문학, 사상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 요청되었다. 즉 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강조되었다. 1917년에 이 학부가 지금의 아시아 · 아프리카학부(SOAS;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로 개조되었으며 이후 40여년간 영국의 유일한 일본연구 기관이었다. 이차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유럽대륙에서는 일본어 교육과 일본연구는 동양언어학 연구기관(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과 민족학연구소(빈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일본연구는 역사, 종교사, 문학, 민족학, 미술, 등이 중심이었으며 사회과학적 연구는 낙후되어 있었다. 어디에서나 학생수도 적었고 대부분 일본의 구제 고교나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맡았다. 그러나 이차대전이 시작되면서 영미의 군대에서는 일본어 회화와 지역연구(역사, 지리,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이때 훈련된 요원들 가운데서 저명한 일본연구자가 다수 배출되었다.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영미에서는 지역연구가 국방과 관련되어 정책적으로 육성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학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적·사적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이었다. 영국에서는 대학을 연구대상 지역별로 특화한 거점교(據点校)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에 일본연구센터(Center of Japanese Studies)를 설치한 셰필드대학의 교육 내용은 주목할 만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당시까지 학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여 고전, 역사, 문학, 종교가 일본연구 과정의 교육 내용이었으나 현대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학부생의 경우에는 일본연구센터와 사회과학(경제, 경제사, 지리, 현대사, 정치, 사회, 경영, 언어) 전공학과에 이중으로 소속되는 체제(Dual degrees)를 갖추어 취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와 전공의 기초훈련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식으로 일본연구의 방법이 multi-disciplinary approach에서 interdisciplinary approach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의 연구 수준 자체가 「일본취미(Japanolatry)」에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일본학(Japanology)」을 거쳐, 「일본연구(Japanese studies)」의 단계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유럽대륙에서는 1960년대까지 고전적 일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1970년대에는 사회과학 중심의 현실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빈대학에서는 1955년에 민속학연구소 부설로 설치된 일본실을 1965년에 연구소로 독립시켰다. 독일의 보쿰대학도 1970년부터 셰필드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선진국에 신생독립국을 연구하는 지역연구 조직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유학한 제3세계 학생들이 귀국하여 본국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역연구의 국제분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지역연구의 조직화를 생각하려면 「대학내 공동연구」 「대학간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를 같이 본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7장 비교사론과 일본사」은 학제적인 지역연구를 거점교의 종합센터 중심으로 조직할 경우 제기되는 지역간 비교연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연구에서도 이는 여러 학문적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봉건제, 근대화, 민주주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제8장 인구와 식자율(識字率)」에서는 지역간 비교연구의 주제로 인구와 문자해독율의 문제를 예로 들어 20세기 후반의 발전도상국을 보는 논점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수준, 언어와 민족의 구성, 용지 공급과 출판 사정, 등의 여러 구체적인 내용이 관계된다. 「제9장 노동문제와 국제이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본연구의 핵심적 주제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비교에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노동학」의 성립 가능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장 일본의 멧세지」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풍요한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왔으므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지금 일본의 지역연구도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외부의 세계를 다루는 지역연구는 가장 내부의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학문 분야라는 성격이 나타난다.

Ⅲ. 일본의 발전도상국 지역연구

일본의 발전도상국 연구를 고찰한 山口의 저작은 일본의 국제적 행동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鈴木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부의 연구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현실적인 정책 문제에 촛점이 있다. 山口는 「지역연구와 지역연구의 단위가 되는 지역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역연구와 사회과학의 관계는 무엇인가?」, 「발전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역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인가?」라는 세가지의 문제를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부 지역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제1장 지역의 제(諸)개념」, 「제2장 지역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저자는 지역의 단위를 ①「一國」, ②「一國의 一地方」, ③ 「인접 數個國의 일부 또는 一國과 인접국의 일부」, ④「數個國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포괄하는 범위」, 등과 같이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은 현재의 국경을 단위로 하는 국민국가이며, ②는 다민족 국가의 민족문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의 한 지방을 의미한다. ③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펀잡지방이나 인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 관련된 발루치스탄, 터키·이란·이라크에 걸쳐 있는 쿠르드 민족문제, 중국의 내몽고자치구, 방글라데쉬와 인도의 서부 벵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에 대해 저자가 소속한 IDE는 발전도상국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소련·동구의 7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이 단순한 지리적인 범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측면도 지적되어 있다. 결국 각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연구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현재의 발전도상국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분석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지역연구자의 자격 문제가 거론되어 있다. 사회과학에 대한 전문지식(discipline)과 아울러 현지에 대한 관심· 공감·체재 경험·지리감각·친구 친지의 확보· 역사 관습에 대한 지식·어학능력 등의 적응능력(infrastructure)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연구자가 자기 나라의 경험에 입각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국제분업이 가능하게 된다. 저자는 여기에서 지역연구자는 오중의 멍에를 지고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 즉 사회과학의 전공 지식, 영독불어의 능력, 지역 언어의 숙달, 지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지식, 비교 대상 선진국가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신형 연구관리자」가 될 필요까지 있다. 그밖에도 하나의 지역을 전세계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중층화되어 있는 지역개념의 여러 단위 사이를 옮겨다닐 수 있는 능력, 호혜성을 발휘하여 연구성과를 연구 대상에 환원하는 자세, 개별 연구자의 연구 사이클에 대한 배려가 지역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지적되어 있다. 저자는 또한 지역연구자는 어디까지나 개별성·특수성을 추구하며 비교 연구를 할 경우에도 지역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며 이 점에서 일반이론의 세련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커뮤니티 연구, 역사 연구도 현재의 지역사정을 이해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지역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제2부 지역연구와 사회과학」은 「제3장 선진과 발전도상의 개념」, 「제4장 아시아정체성론과 근대화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선진」과 「발전도상」의 개념을 고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양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여 분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근대화에서 성공한 것과 동아시아의 근대화 지연은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세계자본주의체제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행하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과 유교문화권을 결부시키는 논리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 비교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근대화론의 단선적 발전론도 비판하고 있다. 제4장은 일본 지성사적 맥락에서 서구지향적 근대화론의 계보인 「脫亞論」과 일본의 지역적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우익의 「興亞論」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이차대전 이전의 논의이지만 지역통합과 국제화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1990년대에서는 오히려 생동감을 주는 현실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1930년대 이후에 만주와 중국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비주류파 지식인들의 현실 분석 가운데서 중국을 통일적·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지역연구자의 시각을 발견하고 있다. 저자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라는 전제가 지나치게 강요되고 있는 배경을 냉전시대의 매카시 선풍속에서 저명한 일본사학자 노만의 자살이나 중국전문가 라티모어의 공직 추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아시아연구자들이 배제된 사실에서 찾고 있다. 일본의 성공과 중국의 실패를 대비시키는 근대화론의 시각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이 중국의 근대화를 저해했다는 역사적 연관을 망각한 평면적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아시아 맹주론을 주장하는 「興亞論」의 가장 큰 맹점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인정안하는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 유행하는 NIEs나 「西太平洋經濟圈」에 대한 논의도 역사적 맥락에서 상대화시켜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3부 지역연구의 당면 과제」는 「제5장 도상국 개발의 현상과 대체적 발전의 길」, 「제6장 NIEs적 발전과 대체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지역연구가 취급해야 할 새로운 쟁점으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개발과 열대림 남벌, 지구 온난화, 속성수의 대체 조림과 생태계 교란, 소수 원주민의 인권, 등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NIEs를 과연 발전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도 개발독재와 강대국의 군사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예로 들어 개발독재가 아닌 대체적인 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저자는 일본에서 지역연구자가 배제된 가운데 발전문제나 최근의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개발경제학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Ⅳ. 맺음말

일본의 지역연구 상황을 집약한 鈴木와 山口의 저작에서 공통된 배경적 가설을 찾는다면 어디에서나 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가 발달하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외국에 대한 지식이 가지는 비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에는 현실 정책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숙명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明治維新과 和魂洋才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의 성공 경험을 발전도상국에 전수하여 「국제적 공헌」을 할 단계에 왔다고 하는 鈴木의 주장은 개발원조가 발전도상국의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한 山口의 문제의식과 같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두 저자는 정책과 밀착된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즘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연구자의 자질로서 현지 사정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로서의 자기 전공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적응능력이 없으면서 이론적 일반화에 치중하는 폐단도 같이 경계하고 있다. 지역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의 정비가 연구자 개인의 자질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종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Tel : 880-8508(O), 618-4353(H)